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위해 태어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요?

과학 문명이나 고고학이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부분을 밝혀 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도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부모인 신님(아버이신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을 보고 함께 즐기고 싶다” 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즐거운 삶이란 모든 인간이 서로 격려하며, 도와가며 살아가는 세상. 모두의 소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쓰기 부터!

즐거운 삶의 천리교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위해 태어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요?

과학 문명이나 고고학이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부분을 밝혀 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도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부모인 신님(아버이신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을 보고 함께 즐기고 싶다” 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즐거운 삶이란 모든 인간이 서로 격려하며, 도와가며 살아가는 세상. 모두의 소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쓰기 부터!

즐거운 삶의 천리교

어떤 것도 시순이 있다. 시순을 놓치면 씨를 뿌려도 싹이 트는 것도 있고 안 트는 것도 있다.

(계시록 · 지도말씀 = 1895.5.12)

씨앗을 뿌리는 시기에는 꼭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출탁동기(啐啄同機)” - 병아리가 부화하려고 할 때, 어미 새가 타이밍이 좋게 알껍데기를 째 주는 것. 육아에도 제철이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려는 때를 보고 손을 내밀면 됩니다. 무턱대고 물건을 주거나 여러 가지 일을 시켜도 효과는 기대할 만큼 바라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시기에 손을 내밀고, 그 후에는 성장하는 것을 차분하게 기다려 주면 됩니다. 신님께서서는 “서두르면서 서루드지 않는 길” 이라고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것도 시순이 있다. 시순을 놓치면 씨를 뿌려도 싹이 트는 것도 있고 안 트는 것도 있다.

(계시록 · 지도말씀 = 1895.5.12)

씨앗을 뿌리는 시기에는 꼭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출탁동기(啐啄同機)” - 병아리가 부화하려고 할 때, 어미 새가 타이밍이 좋게 알껍데기를 째 주는 것. 육아에도 제철이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려는 때를 보고 손을 내밀면 됩니다. 무턱대고 물건을 주거나 여러 가지 일을 시켜도 효과는 기대할 만큼 바라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시기에 손을 내밀고, 그 후에는 성장하는 것을 차분하게 기다려 주면 됩니다. 신님께서서는 “서두르면서 서루드지 않는 길” 이라고도 가르쳐 주십니다.

